

## 이차원적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 양상의 관계: 투자모델을 중심으로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향이 연애관계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투자모델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을 단일차원으로 간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각 차원의 효과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240명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자기애적 성향과 투자모델의 요인들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기애적 성향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웅대성-과시성 차원과 과민성-취약성 차원의 두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차원의 자기애 성향이 투자정도, 대안적 관계의 질, 관계만족을 매개로 하여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모델을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대안적 관계의 질을 매개로 하는 경로 이외에 관계만족을 매개로 하는 경로 역시 확인되었다. 과민성-취약성 차원은 관계만족만을 매개로 하여 헌신에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을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헌신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웅대성-과시성 차원은 대안적 관계와 관계만족 각각을 매개로 하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 헌신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두 경로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향이 연애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면적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자기애, 연애관계, 투자모델

인간의 삶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친밀한 관계는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발달, 자아성취감, 행복함, 욕구만족을 촉진하지만, 반면 대인관계 욕구 충족의 실패는 불안, 우울, 욕구좌절, 소외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병리의 주원인이 된다(권석만, 1995). 청년후기로서 성인기에 들어선 대학생의 발달단계상 정체감, 인생관 및 가치관이 확립된다. 성공적인 인격발달을 위해서 친밀한 대인관계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따라서 대학생활 동안의 대인관계 부적응은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되어 어려움을 가져온다.

대인관계의 양상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개인이 지니는 여러 성격 변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특성 및 성향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안범희, 1985; 최중순, 2003). 특히, 20대와 30대 대학생들의 경우, 파트너와의 교제를 통해 진정한 친밀성을 이루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심리적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하

\* 교신저자 : 양은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E-mail: yange@korea.ac.kr

지만, 타자의 욕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욕구만 충족시킨다면 연애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이고 발달단계에 있어 정체 및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Masterson, 1985; Millon, 1981 등)은 개인적인 성격특성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실체로서의 자기에 초점을 두고,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의 풍토가 만연해지는 현 사회가 점점 더 자기애적으로 되어간다고 주장한다(Emmon, 1987). 또한, 이와같은 자기애적 사고와 행동양식이 현대 생활의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인관계 및 연애관계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주는 개인의 성격적 변인 중 하나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자기에 성향이다.

자기애의 개념은 정신병리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DSM-IV-TR에서는 자기애란 일상적인 과도적 패턴(공상이나 행동에서), 칭찬에 대한 욕구, 공감결여 등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향이라고 정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스스로에게 몰입하고, 야심이 강하고 웅대한 내용의 공상을 잘 하며,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지혜와 권력,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타인의 주의와 존경을 바라는 자기애적 모순을 보이며 노출적 과시를 통해 남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기애적 사람들이 피상적으로는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적인 세계는 병리적이며 이러한 측면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며, 만성적으로 지루함과 공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에 있어, 타인 역시 고유한 감정과 욕구를 지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이들은 타인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줌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이 나 감정을 공감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관계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 즉,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개인은 친구가 별로 없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권

석만, 한수정, 2000).

아직까지 자기애적인 성향이 연애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자기애적 성향은 일반적 대인관계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애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준형, 2006; Campell, 1999). 지금까지 연애관계양상에서 관계가 유지되거나 파탄되는 데에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보면, 헌신, 만족, 애정 및 유사성과 같은 요인들이 연애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대식, 1998). 이 중에서 헌신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 또는 의도로서, 일반적으로 관계의 유지 혹은 파탄의 심리적인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Felmlee, Sprecher, & Bassin, 1990; Hendrick & Hendrick, 1998). 즉,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수용하고 나와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부분인, 헌신의 과정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애관계에 있어 커플들의 헌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bult, 1983).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연애관계에서 파트너에게 낮은 수준의 헌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연애관계에서 이기적이며(self-serving), 유희적 사랑(game-playing)을 추구하고, 비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연애관계에 있어 덜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준형, 2006; Campell, 1999). 이는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파트너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고 상대방의 그런 완벽한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Hewitt & Flett, 1991), 연애관계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파트너로 상대가 완벽하길 바라며 그런 파트너를 통해 자기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또한, 자기애적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진정한 헌신이나 친밀감을 위협이나 위협이라고 느낀다(Tice, Butler, Muraven, & Stillwell, 1995). 결과적으로 연애관계도 자기고양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경험하기보다는 자신의 웅대성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자기애적 성향과 낮은 헌신 수준간의 관계를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Rusbult(1983)가 제시한 투자모델(Investment Model)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성공적인 연애관계의 핵심인 헌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애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는 상호의존관계이론(interdependence theory)을 확장 수정한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관계들에 있어 파트너들이 주고 받는 대가(cost)와 보상(reward)을 분석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특정 관계에서의 이득과 손실을 계산해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 특히, 개인들은 자신이 어떤 관계에서 얻는 전체 결과, 즉 그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로부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차감하여 계산된 전반적인 손익상태에 초점을 둔다.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의 결과들을 매우 의식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기본 과정은 '나는 이 관계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혹은 '나는 우리의 관계가 요즘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진술 속에서 관계들을 평가하고 있다(Kelley & Thibaut, 1978; Rusbult, 1980).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관계에서 우리 자신에게 보상을 줄 능력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상대들을 선택하거나, 상호작용을 조정하여 자신의 대가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최대화시키고자 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애관계에 있어, 교제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시간, 노력과 같은 물리적 혹은 심리적 비용을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따라 관계에 있어 헌신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관계의 지속 혹은 종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투자모델 개념은, 개인의 만족(satisfaction), 투자(investment), 그리고 대안적 관계의 질(alternative)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에 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다. 첫째, 개인의 만족(satisfaction)은 개인이 관계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헌신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자(investment)는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심리적, 혹은 물질적인 자원을 얼마나 투자하였는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자원(은행계좌, 주거공간), 그리고 함께 한 시간들과 추억들을 들 수 있다. 만족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많을수록 헌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안

적 관계의 질(alternative)은 파트너와의 관계 이외에, 만족감을 제공하거나 투자, 헌신이 가능한 다른 관계들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경험적 연구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투자모델에서 제시하는 요인들 중 특히 지각된 대안적 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헌신도를 보고하였고, 보다 많은 대안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Foster, & Finkle, 2002). 자기애적 성향을 선행변인으로 상정하여 투자모델을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Campbell & Foster, 2002), 매개변인들 중 대안적 관계의 질만이 자기애와 헌신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경우 관계에 헌신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관계 만족이 낮거나 관계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 보다는 이러한 경향이 대안적 관계의 질을 보다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지각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애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웅대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Gabriel, Critelli, & Ee, 1994),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 '트로피배우자(trophy spouses)'와 같이 항상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파트너를 끊임없이 찾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성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기고양의 한 수단으로, 자존감 상승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다른 파트너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Masterson, 1988). 자기애적 성향자들이 대안적 파트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들이 오랫동안 헌신하며 지속한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정서적 두려움과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로도 볼 수 있다. Campbell과 Foster(2002) 역시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경험되는 흥분이나 스릴을 즐기고, 많은 이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고양된 자기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수준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안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관계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비록 Campbell과 Foster(2002)의 연구가 투자모델을

근거로 자기에적 성향이 연애관계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긴 하였으나, 자기에적 성향을 단일 차원으로 고려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Kohut(1971, 1977)는, 자기(self)의 개념은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즉, 열정적인 야심에 토대를 두고 있는 한 구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체계에 토대를 두고 있는 다른 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 개인 내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구조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데, 자신의 안정적인 구조에 토대를 둔 자기가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가치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이와 같은 Kohut의 개념은 자기에의 구조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즉 자기가가 한 연속성 상의 양 극단에 있는 서로 다른 특성들로 존재하거나 자기에의 다른 특성들이 두 개의 연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강은영 & 이영호, 2006). 또한,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에적 성향은,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된다(Kernberg, 1975; Kohut, 1977).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는 모두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이 핵심 특성이며,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상은 다르다. 외현적 자기에는 겉으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웅대한 자기표상과 오만한 태도를 주된 특징으로 하며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는 자기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이들은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들의 내적 세계의 핵심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비밀스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경험적 연구들도 이러한 이차원적 자기에적 성향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자기에성 측정도구에 대한 이전 선행연구들(한수정, 1999; Wink, 1991)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웅대성과 취약성, 혹은 양가적인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두가지 차원을 나타내었으며, 각 차원은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각기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였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높은 자신감과 인생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고한 반

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낮은 자신감과 낮은 만족감을 보고하였다(Rose, 2002).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외현적 자기에에 해당하는 웅대성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복수심이 많고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나, 내현적 자기에에 해당하는 취약성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앞서 기술된 대인관계 양상과 함께 방어적이며 불안하고 민감하여 사회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은 모습도 함께 나타낸다(박순희, 2009; Dickinson & Pincus, 2003).

결과적으로, 자기에적 성향이 다소 이질적인 차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연애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이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비록 이차원적 자기에 성향과 일반적 대인관계 양상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나, 이 선행연구결과들이 연애관계에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Campbell과 Foster(2002)에서 제시된 모형이 다차원적 자기에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기가가 연애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자기에 성향이 연애관계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투자모델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자기에적 성향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웅대성과 취약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들 두 차원을 예측변인으로, 투자모델의 투자, 대안적 관계의 질, 관계만족을 매개변인으로, 투자모델의 현신을 종속변인으로 한 매개모형을 검증하여 이들 두 차원이 가지는 차별적 영향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자기에 성향의 투자모델과 단일차원 자기에 성향의 투자모델의 비교를 통해 다차원적 접근과 단일차원적 접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참가자

본 연구에는 서울지역 미혼남녀 2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과 연애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25명을 제외한 24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4.7세(표준편차: 2.64)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 82명(43.1%), 여자158명(65.8%)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대학생은 138명(57.5%), 직장인은 102명(42.5%)이었으며, 현재 연애 중인 사람은 156명(65.1%), 현재는 연애 경험이 없으나 과거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84명(35.0%)이었다.

### 측정도구

####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1995)이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들 중에서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여기에는 2종류의 척도로 공유 척도와 비공유 척도가 있다. 공유 척도는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도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포함시킨 척도이고 비공유 척도는 다른 성격장애와의 공유 특성은 모두 제외하고 자기애적 성격장애에만 해당되는 특성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공유 척도를 사용하였다. 황순택의 원척도는 총 18문항이며 4점 척도로 되어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한수정(1999)이 7점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절차와 동일하게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축요인분석 방법으로 사각회전인 promax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유치가 1.0을 넘는 요인이 5개가 도출되었으며, scree 검사결과와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2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결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의 2개의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39.93%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변량은 요인 1은 전체 설명변량의 29.10%를 설명하였고, 요인 2는 10.83%를 설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교차요인 부하량을 나타난 8번 문항(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거해 1요인 11문항, 2요인 6문항으로 확정되었다. 하위요인에

서 첫 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부정적 평가나 비난에 대한 모욕감, 분노, 공격적 반응들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과민성-취약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인정과 지지 추구, 평가에 대한 기대 또는 상상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옹대성-과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과민성-취약성 .84, 옹대성-과시성 .70으로 나타났다.

#### 투자모델 척도

Rusbult, Martz와 Agnew(1998)이 개발한 투자모델 척도(Investment Model Scale)를 이정은 등(2007)이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자, 국문학 전공자, 영문학 전공자 각각 두 명씩과 함께 공동 번안 작업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투자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네 가지 항목(헌신, 관계만족, 대안적 관계의 질, 투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전체 척도는 9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 총 38문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상대방에 대한 관계 만족도는 11문항('서로의 생각이나 비밀 등을 나누면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킨다', '이 연애관계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등), 헌신은 7문항('나는 내 연인에게 깊이 빠져있는 것 같다', '우리가 곧 헤어진다고 해도 나는 별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등), 투자 정도는 10문항('우리 관계가 끝난다면, 잃을 것이 많을 정도로 연인에게 투자했다', '연인이 내 친구나 가족과 관련되어 있어서, 헤어진다면 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다'), 대안적 관계의 질은 10문항('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족시킬 수 있다',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매력적이다', '나는 내 연인 이외에 다른 누군가와 매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등)으로 측정된다. 원척도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성별, 인종,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Blackwell & Agnew, 2003). 이정은 등(2007)이 번안한 투자모델척도의 신뢰도는 만족 .92, 대안 .76, 투자 .87, 헌신 .77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만족 .89, 대안 .84, 투자 .86, 헌신 .77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연구대상의 표집은 편의 표집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중 대학생은 강사의 동의하에 수업 중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 및 동의서를 배부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된 장소로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이외의 연구대상은 연구진의 지인 중 현재 연애중인 미혼남녀를 접촉하여 모집하였으며, 최초 모집된 연구대상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다른 미혼남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와 관계만족, 대안적 관계의 질, 투자정도, 헌신정도, 그리고 기본적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전체 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 자료 분석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투자모델의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분석 또한 SPSS 17.0을 사용하였다.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검증은 AMOS 16.0을 사용하였다. 관계만족과 자기애성 성격 척도는 각각 한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했다. 문항 묶음은 일요인 분석을 한 후에 요인 부하량에 따라 각 문항 집단의 평균값을 비슷하게 배분해, 척도 내에서 문항을 3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방정식 검증을 위한 몇 개의 잠재변인으로 만드는 절차이다. 이런 방법은 각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증가시키며, 모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hi^2$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chi^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와  $\chi^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95 값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6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는지 살펴보았다. 정규분포 가정이 심하게 위반된 경우, 최대 우도법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살펴보았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2; 첨도>7)의 경우는 심한 비정규분포에 의하면,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 과

###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앞서 모형검증에 사용된 각 변수 간의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1). 투자모형에서 상징하는 바와 같이 헌신은 관계만족( $r = .63, p < .01$ )과 투자( $r = .64, p < .01$ )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대안적관계의 질( $r = -.23, p < .01$ )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과민성-취약성은 관계만족과 부적상관( $r = -.13, p < .05$ )을, 웅대성-과시성은 대안적 관계의 질과 정적상관( $r = .24, p < .01$ )을 나타내었다.

###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연애관계의 투자, 대안적 관계의 질, 관계만족이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모델에서 자기애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자기애의 두 가지 요인, 과민성-취약성과 웅대성-과시성이 투자, 대안적 관계의 질,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정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의 범위에 해당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내었다;  $\chi^2 = 213.820$  ( $df = 91$ )  $p = .00$ , TLI = .920, CFI = .939, RMSEA = .075. 자기애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량

	자기애 총점	과민성 취약성	웅대성 과시성	관계 만족	대안적관계 의 질	투자	헌신
자기애 총점	-						
과민성취약성	.95**	-					
웅대성과시성	.68**	.43**	-				
관계만족	-.07	-.13*	.06	-			
대안적관계의 질	.20**	.12	.24**	-.09	-		
투자	.08	.09	.04	.39**	-.23**	-	
헌신	-.10	-.12	-.03	.63**	-.24**	.64**	-
평균	70.47	40.04	25.74	38.23	23.90	28.56	12.39
표준편차	12.83	10.32	3.97	9.04	10.32	10.95	4.11
왜도	0.04	0.10	-0.43	-0.48	-0.17	-0.07	-0.18
첨도	-0.18	-0.39	0.53	0.12	-0.54	-0.53	-0.28

\* $p < .05$ , \*\*  $p < .01$

의 두 가지 요인 중 과민성-취약성이 투자와 대안적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관계만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 $\beta = -.26, p < .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의 또 다른 요인인 웅대성-과시성의 경우 투자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대안적 관계의 질( $\beta = .32, p < .01$ )과 관계만족( $\beta = .60, p < .001$ )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매개변인, 투자( $\beta = .36, p < .001$ ), 대안적 관계의 질( $\beta = -.17, p < .01$ ), 관계만

족( $\beta = .34, p < .001$ )이 헌신으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Sobel test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와 유의미성을 분석한 결과, 과민성-취약성이 관계만족을 거쳐서 헌신에 미치는 부적 효과( $\beta = -.15, p < .01$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대성-과시성이 헌신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경우에는 관계만족을 매개로 한 정적 효과( $\beta = .12, p < .05$ )와 대안적 관계를 매개로 한 부적 효과( $\beta = -.05, p < .05$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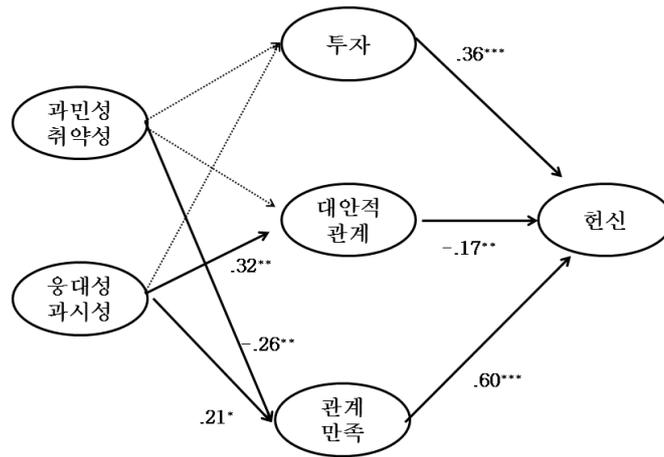


그림 1. 이차원적 자기애 투자모델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이차원적 자기애 투자모델의 간접 경로효과 검증

				간접효과	Sobel test (Z)	
과민성 취약성	→	관계만족	→	현신	-0.15	2.58**
과민성 취약성	→	대안적관계의 질	→	현신	0.01	0.41
과민성 취약성	→	투자	→	현신	0.05	1.48
용대성 과시성	→	관계만족	→	현신	0.12	2.00*
용대성 과시성	→	대안적관계의 질	→	현신	-0.05	2.08*
용대성 과시성	→	투자	→	현신	0.00	0.10

**대안모형 검증**

연구모형에 대한 대안모형으로 2요인으로 구분하지 않은 1요인 자기애를 예측변인으로 상정하고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98.818(df = 80), p = .00, TLI = .906, CFI = .938, RMSEA = .079$ 로 나타났다. 대안 모형에서 가정한 경로를 살펴보면 자기애가 투자와 관계만족을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애가 대안적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하였다( $\beta = .23, p < .01$ ). 아울러 세 매개변인인 투자( $\beta = .36, p < .001$ ), 대안적 관계의 질( $\beta = -.16, p < .01$ ), 관계만족( $\beta = .60, p < .001$ )이 현신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모형적합도 비교와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TLI(.920), CFI(.939), RMSEA(.075)로 나타나 대안모형의 적합도 TLI(.906), CFI(.938), RMSEA(.079)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보여 연구모형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entler와 Bonett(1980)의  $\chi^2$  차이검증을 통해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이 대안모형보다 자료를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간주하고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향이 연애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모델에 기초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을 과민성-취약성 차원과 용대성-과시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투자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대안적 관계의 질, 관계 만족이라는 세가지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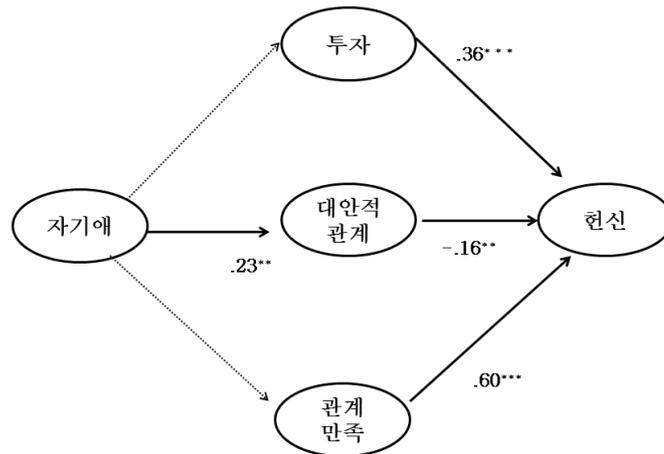


그림 2. 일차원적 자기애 투자모델

\* $p < .05$ , \*\*  $p < .01$ , \*\*\*  $p < .001$

변인을 통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자기애적 성향의 이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PDS)의 반응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구분되는 두가지 차원이 확인되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은 과민성-취약성 차원으로 관계에서 자존감이 위협받거나 손상받을 때 경험하는 분노감이나 모욕감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반영하며, ‘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내현적 자기애(Kernberg, 1975; Kohut, 1977) 혹은 취약성(한수정, 1999; Dickinson & Pincus, 2003; Wink, 1991) 차원과 일치하는 요인이다. 두 번째 차원인 웅대성-과시성 차원은 자기고양적 지각과 이에 대한 인정 욕구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포함하며, 그 예로 ‘마음만 먹으면 나에게 대해 남들이 평가하는 정도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자기애적 성향이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자기취약성과 자기과시성의 두 요인이 추출된 이전 선행연구들(Dickinson & Pincus, 2003; Wink, 199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및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두 차원은 Kernberg(1975)와 Kohut(1977)이 제시한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과민성-취약성 차원은 관계에 있어서 과민하고 방어적이라는 점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웅대성-과시성 차원은 과시적이고 자기 확신적이라는 점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유사하다(Wink, 1991).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기애의 두 가지 요인을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자기애 두 요인이 만족과 헌신의 관계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상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통해,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양가적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수정, 1999; Dickinson & Pincus, 2003; Wink, 1991). 또한 자기애 성향이 클수록 자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주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

으며 이렇게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양가적으로 내림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와 같은 불편감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더욱 자기 내부로 주의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기애적 성향이 더욱 강화, 역기능인 상태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성 관계에 더욱 집중하지 못하고 대안을 찾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헌신의 정도를 더욱 낮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애의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투자모델을 검증한 결과, 이들 두 차원은 투자를 제외한 다른 두 매개요인을 거쳐 헌신에 영향을 미쳤으며, 두 차원이 관련된 경로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민성-취약성 차원의 경우 관계만족 저하를 매개로 하여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과민성-취약성 차원이 두드러지는 자기애적 성향자들은 웅대성-과시성 차원이 높은 자기애적 성향자들과 달리 관계에서의 취약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한다(Dickinson & Pincus, 2003). 과민성-취약성 차원의 이와 같은 특성은 연애관계에서의 문제 지각과 불만족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존감이 위협되는 상황에 민감하고 이에 대해 강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은 연애관계 맥락에서도 견고하지 못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며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헌신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반면 웅대성-과시성 차원은 대안적 관계의 질과 관계 만족의 두 요인을 매개로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웅대성-과시성 차원과 헌신의 관계에 있어서 대안적 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 경로와 관계만족을 매개로 한 경로는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대안적 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 경로에서는 웅대성-과시성 차원이 대안적 관계의 질에 대한 고려를 증가시킴으로써 헌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파트너를 인식하기 때문에 보다 이상적인

파트너와 관계를 형성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파트너를 찾는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Campbell, 1999; Masterson, 1988). 그러나, 관계만족을 매개로 한 경로에서는 웅대성-과시성 차원이 관계만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관계에 대한 헌신 역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과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만족스럽게 지각하고, 그 결과 관계에 보다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웅대성-과시성 차원의 긍정적 효과는 본 연구가 병리적인 자기애적 성격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애적 성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일반인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애적 성향은 우울, 불안,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 자기애적 성향이 상당 부분 자존감과 중첩되기 때문이다(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웅대성-과시성 차원 역시 자존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수 있으며, 관계 만족도 및 헌신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웅대성-과시성 차원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이에 반영된 자존감의 효과일 수 있다. 웅대성-과시성 차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헌신을 반영하기 보다는 관계 문제를 부정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웅대성-과시성 차원이 높은 자기애적 성향자들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를 가집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은 호소하지 않는다(Dickinson & Pincus, 2003). 이처럼 웅대성-과시성 차원은 연애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부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관계를 보다 만족스럽게 지각하게 하고 스스로도 관계에 헌신하고 있다고 지각하도록 할 수 있다.

자기애적 성향을 이차원으로 고려할 때, 단일차원의 자기애와는 구분되는 몇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자기애가 헌신을 예측하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자기애적 성향을 단일차원으로 고려하여 투자모형을 검증하였을 때에는 대안적 관계의 질을 매개로 하는 경로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Campbell과 Foster의 선행연구(2002)와 일치하는 결과

였다. 반면, 자기애적 성향을 과민성-취약성 차원과 웅대성-과시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투자모형을 검증하였을 때에는 관계만족 역시 유의미한 매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웅대성-과시성은 관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과민성-취약성은 부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차원의 자기애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관계만족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계만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자기애의 두 차원이 연애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구분되며 다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자기애의 두 차원이 이질적인 요인임을 지지한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애가 두 차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두가지 차원의 자기애 안에서도 다시 여러 하위 특성들로 분류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차원의 복잡한 특성들로 이루어진 자기애의 유형 및 여러 하위 특성들로 분류된 자기애를 좀 더 세분화시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인의 자기애적 성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결과가 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애성, 혹은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일반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의 자기애적 성향의 경우 자존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자기애적 성격장애와는 구분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일반인 집단과 자기애적 성격장애 집단을 구분하고, 자기애 성향과 자존감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애관계 양상을 개인적 관점에서만 분석함으로써 관계의 상호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연애관계 양상과 관련된 개인차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애적 성향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관계에 대한 헌신을 예측하는지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애관계 양상은 개인과 파트너의 상호성에 기초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관계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플의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파트너의 개인적 특성 및 관계양상에 대한 지각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연애관계 교제기간을 통제하지 않았다. 연애관계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경우, 관계가 깊어지고 투자한 양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자모형의 하위요인인 만족, 투자, 그리고 대안의 질과 양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연애관계 기간을 여러 시기로 나누어 연애관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종단적인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지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연구대상자의 반응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이 연구대상의 반응경향성을 함께 측정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먼저 연애관계에 있어서 자기애가 가지는 역할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자기애를 웅대성-과시성 차원과 과민성-취약성 차원으로 구분함으로써, 자기애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대안적 관계의 질을 매개로 하는 경로 (Campbell & Foster, 2002)이외에도, 관계만족을 매개로 하는 경로로도 현신정도를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애가 연애관계 양상에서 발휘되는 과정을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다차원적 자기애의 영향력이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웅대성-과시성 차원과 현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대안적 관계의 질을 매개로 하는 경로와 관계만족을 매개로 하는 경로는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차원의 자기애적 성향과 매개변인인 관계만족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웅대성-과시성 차원과 과민성-취약성 차원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처럼 다차원적 자기애 성향의 상반된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단일차원의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 연구를 정교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애적 성향이 연애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애적 성향의 차원에 따라 다른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기애적 성향자들의 관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투자모형을 바탕으로 매개변인을 통한 개입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신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기애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 관계에 만족해 왔는지, 관계에서 개인이 바라는 요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충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대안관계의 장/단점, 대안관계의 질, 그리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이성관계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현신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친밀한 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자기애적 성향의 보편화(Emmons, 1987)는 친밀감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적응적인 연애관계를 돕고 나아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함의가 있다. 나아가 이성관계 역시 대인관계 영역의 한 확장임을 볼 때, 대인관계에서의 타인과의 보다 적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한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애관계 속에서 두 가지 차원의 자기애적 특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며 궁극적으로 관계 유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맥락에서 자기애적 성향이 다차원적 의미를 가지며,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자기애적 차원에 따라 경험하는 관계 문제 및 그에 대한 개입 접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자기애적 성향의 이질성을 고려한 개입 접근을 고안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은영, 이영호 (2006).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자기주도적 자기애 및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397-415.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0(1), 38-63.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박순희 (2009).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양식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형 (2006). 자기애,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공격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 (1985). 대인관계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이타적 망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83-995.
- 최종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지, 12(2), 199-22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243-264.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Rev. 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 Washington, DC: Author.
- Blackwell, L. B., & Agnew, C. R. (2003). Commitment and its theorized determinants: A meta-analysis of the investment model. *Personal Relationships, 10*, 37-57.
- Bentler, P. M., & Bon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Campbell, W. K. (1999).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254-1270.
- Campbell, W. K., & Foster, C. A. (2002). Narcissism and commit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484-495.
- Campbell, W. K., Foster, C. A., & Finkel, E. J. (2002). Does self-love lead to love for others? A story of narcissistic game pla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340-354.
- Clark, L. A., & Watson, D. (1995). Constructing validity: Basic issues in objective scale develop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7*, 309-31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y Methods, 1*, 16-29.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 188-207.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Felmlee, D., Sprecher, S., & Bassin, E. (1990). The dissolu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A hazard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13-30.
- Gabriel, M. T., Critelli, J. W., & Ee, J. S. (1994). Narcissistic illusions in self-evaluations of intelligence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62*, 143-155.
- Hendrick, C., & Hendrick, S. S. (1998). Lovers wear rose colored glass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161-18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elley, H. H., & Thibaut, J. E.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Wiley.
-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sterson, J. F. (1985). *The real self*. New York: Brunner Mazel.
- Materson, J. F. (1988). *The search for the real self*. New York: Free Press.
- Millon, T. (1981). *Disorders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Rusbult, C. 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 Rusbult, C. E., Martz J. M., Agnew C. R. (1998).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5, 356-387.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Tice, D. M., Butler, J. L., Muraven, M. B., & Stillwell, A. M. (1995). When modesty prevails: Differential favorability of self-presentation to friend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120-113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부록 1>.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의 요인분석결과

문항 번호	1요인: 과민성-취약성(11문항) (Cronbach's $\alpha$ = .84, Eigenvalue=5.26)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5	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	0.65	
16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종종 있다	0.63	
14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0.61	
4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0.61	
18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0.61	
12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0.57	
3	어떤 일에 대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0.55	
10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0.54	
6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0.54	
7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하찮게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0.52	
2	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0.47	
	2요인: 웅대성-과시성 (6문항) (Cronbach's $\alpha$ = .70, Eigenvalue=1.91)	요인부하량	
15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0.82
9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0.63
11	마음만 먹으면 나에게 대해 남들이 평가하는 정도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0.50
13	다음 중의 한 가지(혹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있다.		0.50
17	내가 해낸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		0.46
1	나는 남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0.30

##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imensional narcissism and romantic relationship: Analysis of the investment model

Sungbum Woo, Suk Kyung Nam, Seungmin Lee,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narcissism on a romantic relationship using the investment model. The previous study considered narcissism as one dimensional construct. This study elaborated the previous findings by specifying the influence of distinctive dimensions of narcissism. A total of 240 college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measuring narcissism and the variables of the investment model.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yielded two dimensions of narcissism, Grandiosity-Exhibitionism and Sensitivity-Vulnerability. The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wo paths from narcissism to commitment. First, Sensitivity-Vulnerability predicted commitment via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Grandiosity-Exhibitionism predicted commitment via two mediators, which were the quality of alternative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influences via these two paths counteracted each other, and consequently nullified the influence of Grandiosity-Exhibitionism on commitment. These findings imply the multifaceted roles of narcissism on a romantic relationship.

*Key words:* Narcissism, Romantic Relationship, Investment Model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7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2월 09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2월 10일